



제 98 호

경상북도 의회소식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36759 경북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2016. 8.



지면안내

- 10대 후반기 출범01-05면
- 의정소식06-08면
- 제10대 전반기 총 결산09-13면
- 위원회 활동(상임·특별)14-22면
- 의회운영·기획경제·행정보건의복지·문화환경·농수산·건설소방·교육위원회·특별위원회
- 도정질문.....22면
- 장영석 의원(구미)·김종영 의원(포항)·김희수 의원(포항)
- 주요처리안건소개·도정질문·5분 자유발언23면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에 김응규(김천)의원 선출 부의장에 고우현(문경) 의원, 장두욱(포항) 의원 선출 도민에게 “힘”이 되는 도의회, 정성을 다하는 도의회 될 것

경상북도의회는 7월4일 오후 2시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앞으로 2년간 도의회를 이끌어 나갈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했다. 의장에 김응규(김천, 새누리당)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부의장은 고우현(문경, 새누리당)의원과 장두욱(포항, 새누리)의원이 각각 당선 됐다.

김응규 경상북도의회 의장



[학력 및 약력]

중앙대학교 사회사업학과 졸업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졸업
김천대학교 실버케어보건복지학과 외래교수
제6대, 7대, 8대 경북도의원
제8대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친선연맹회장(현)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현)
제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16. 7월 ~ 現)

[김응규 경상북도의회의장 당선 인터뷰]

제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도청 시대를 맞아 경상북도가 재도약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에 의장직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300만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 정성을 다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를 운영해 나가겠으며, 도민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에 대해 충실하면서 제대로 도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가끔은 회초리도 들면서도, 도민 복리증진에 직결된 도정현안에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 교육감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의원상호간의 소통과 화합에 중점을 두고 의원 역량강화를 통해 의회 위상을 높이면서,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의정활동을 실현하겠습니다.

경북도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문제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으며, 도정질문 시 도지사 답변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 도지사와 일문일답식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경북도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우현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학력 및 약력]

육군3사관학교 졸업
점촌중학교 총동창회 회장
새마을운동중앙회 문경시지회 사무국장
향토예비군 문경시 제1기동대 대장
세계유교문화재단 집행위원
경상북도의회 도청이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제8제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
제9대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제9대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의복지위원회 위원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제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16. 7월 ~ 現)

{ 고우현 부의장 당선 인터뷰 }

경북의 새로운 천년을 열어갈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는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한 시기에 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300만 도민의 복지향상과 잘사는 경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실한 의정활동과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협력하여 후반기 지역 현안 제반사항을 제대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경북도의회 위상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의회의 본능인 감시와 견제기능을 성실히 수행하고 중요사항은 의총에서 결정하도록 도의회를 운영할 것입니다.

장두욱 경상북도의회 부의장



[학력 및 약력]

포항고등학교 졸업
경주대학교 국제무역학과 졸업
전)포항시 자율방범연합회 회장
현)포항시의정회 이사
현)학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위원
현)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북부지사 자문위원
제2대 포항시의회 의원
제8, 9대 경북도의회 의원
제9대 경북도의회 서민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전반기)
제9대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후반기)
제10대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제10대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
제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부의장('16. 7월 ~ 現)

{ 장두욱 부의장 당선 인터뷰 }

부의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큰 영광이지만, 신도청 시대를 본격적으로 열어갈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후반기는 확실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깊은 소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건의사항을 직접 해결하는 실무형 부의장으로서, 도정질문 일문일답 즉각시행 출자출연기관 인사청문회 등 도정개혁을 이끌어 내는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수행하겠으며, 후반기 도의회에서는 300만 도민의 대표기관인 경상북도의회가 신명나게 의정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신도청 시대 도의회의 새로운 미래상을 만들겠습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완료, 7개 상임위원장 선출, ‘일하는 의회’ 상 확립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7월 7일 오전 11시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7개의 상임위원회인 의회운영, 기획경제, 행정보건복지, 문화환경, 농수산, 건설소방,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함으로써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완료했다.

제10대 경상북도의회 후반기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의회운영위원장 김봉교(구미), 기획경제위원장 도기욱(예천),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이정호(포항), 문화환경위원장 배한철(경산), 농수산위원장 나기보(김천), 건설소방위원장 김명호(안동), 교육위원장 강영석(상주)이 선출됐다.

한편, 본회의 종료후 오후 3시 30분 부터는 1층 로비에서 제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식을

개최하고, 전반기 동안 수고한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으며 항상 도민과 함께 하는 후반기 의회를 만들 것을 다짐했다.

출범식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영우 경북도 교육감,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 양재경 의정회장을 비롯한 의정회 회원 등이 참석해 후반기 도의회 출범을 축하했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상임위원 명단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봉교(구미), 부위원장 황병직(영주)

△ 위원 : 김위한(비례), 김정숙(비례), 남진복(울릉), 박문해(포항), 이수경(성주), 최병준(경주), 한창화(포항), 김창규(칠곡), 박영서(문경), 이운식(상주), 이동호(경주), 박정현(고령), 조현일(경산)



[김봉교 의회운영위원장 인터뷰]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회운영을 총괄하는 의회운영위원장직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매우 영광스럽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제10대 도의회 전반기는 지난 2년동안 많은 일들을 했고, 여러모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함. 홍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의 노고와 열정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신임 김응규 의장님의 의회운영 철학을 적극 뒷받침하고, 이제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는 우리 도의회가 보다 새로워지고, 보다 수준이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도록 솔선수범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우선, 우리 의회의 기능과 위상을 확실히 정립할 것이며 집행부와는 긴밀히 협조하고 협력해 나가되 시책방향이

맞지 않거나 잘못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견제하고 시정되도록 함으로써 의회의 위상과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300만 도민과의 화합과 소통, 그리고 60명 의원님과의 소통과 협력에 힘쓰겠습니다. 도민들의 정책개발과 행정감시 활동에 대한 참여확대를 위해 예산편성과 행정사무감사시에 주민제보와 주민참여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와 의원총회를 정례화하고 활발한 토론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0만 도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우리 도의회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큰 힘이 되도록 노력할 것임. 우리 도의회를 믿고 의회운영에 대한 많은 성원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도기욱(예천), 부위원장 김창규(칠곡)

△ 위원 : 김위한(비례), 박현국(봉화), 배진석(경주), 이홍희(구미), 정상구(청도), 윤성규(경산), 이태식(구미), 장경식(포항), 박성만(영주)



[도기욱 기획경제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무한한 영광과 함께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300만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전한 중재와 경북의 미래 비전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낮추겠습니다. 사심 없이, 열정으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을 다짐합니다.

특히,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집행부 견제를 위해서는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집행부보다 더 많이 알아야 견제가 가능합니다. 전문가를 초빙하는 주기

적인 워크숍을 통하여 위원들의 의정 역량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을 소중히 여기는 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을 곧잘 쓰곤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을 줄여서 쓴 것입니다. 이 말처럼 될 수 있는 한 현장을 많이 다니면서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정호(포항), 부위원장 박영서(문경)

△위원 : 김봉교(구미), 김정숙(비례), 남진복(울릉), 박권현(청도), 이상구(포항), 이영식(안동), 장두욱(포항)



[이정호 행정보건복지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도민의 행정·보건·복지를 담당하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 또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지수요의 증대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어,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겠습니다.

도민의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의정 본연의 활동인 예·결산 심사와 조례 제·개정, 정책 질의, 행정사무감사 등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

로써, 그 어느때 보다도 역동적이고 내실 있는 행정보건복지위원회가 되도록 의정활동을 주도하겠습니다.

또한, 상임위 소관의 민생관련 현안사업은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끝으로,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이 최대한 발휘하도록 의원 연수 등을 통해 연구하고 공부하는 의원상 정립에도 힘쓰며,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위원회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및 상임위원 명단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 배한철(경산), 부위원장 이운식(상주),

△위원 : 김인중(비례), 이진락(경주), 장용훈(울진), 조주홍(비례), 황병직(영주), 정영길(성주), 장대진(안동)



[배한철 문화환경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문화환경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기쁨보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후반기 새롭게 구성된 상임위원들과 적극 협력하여 경상북도 의회의 모범이 되는 문화환경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의장단과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집행부와 적극 소통·협력하여 도민의 문화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 산림자원 보호·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심사시 전시·낭비성 투자를 지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특 사안별로 깊이있는 심사활동을 벌여 나갈 것이며,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점검으로 도정 운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안건 심사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제시하고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따뜻한 가슴으로, 늘 꿈꾸고 도전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농수산위원회

위원장 나기보(김천), 부위원장 이동호(경주)

△위원 : 김수용(영천), 배영애(비례), 안희영(예천), 윤종도(청송), 이수경(성주), 최태림(의성), 한창화(포항), 황이주(울진), 황재철(영덕)



[나기보 농수산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농수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현재 농어업 및 농어촌의 대내외적 여건이 매우 어려운 시기이므로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낍니다.

농수산위원회는 농수축산물의 시장개방 확대와 농어촌 인력의 고령화 등 국내외 농어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잘사는 복지 농어촌을 건설하기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인 집행부에 대한 협력과 견제를 충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농수산업을 미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여 농어업과 농어촌의 활력을 되살려야 하, 생산과 유통 관광에 이르는 농어촌

6차 산업화를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농어업 청년리더 육성, 수출 확대, 유통구조 개선, 품질 고급화로 경북 농업의 명성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수산자원 복원, 양식업 첨단화, 환동해시대 대비 동해안발전 전략 발굴 등 경북 농어업 발전을 위해 현장 여론 수렴, 재정확보, 입법·정책개발 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농수산위원회 소속 모든 위원들은 농어업인의 현안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농어업 현장 활동을 강화하는 등 진정한 민의의 대변자로서 옹도 경북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열린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김명호(안동), 부위원장 박정현(고령)

△위원 : 김수문(의성), 김종영(포항), 남천희(영양), 박문해(포항), 오세혁(경산), 장영석(구미), 홍진규(군위), 한혜련(영천)



[김명호 건설소방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경상도 개도 700년과 새천년 경북의 신도청 시대를 맞이하여 제10대 경북도의회 후반기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감사와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건설소방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들과 함께 한 단계 도약하여 300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균형개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도청 신도시 조성, SOC망 구축 및 지역의 균형발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라는 막중한 과제와 브렉시트(Brexit) 후폭풍으로 인한 불확실한 경제의 해소와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등 산적한 현안과제를 집행부와 함께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독려하고 대안마련 및 사업추진의 애로사항 등을 풀어가면서 맞춤형 지역개발, 도민이 행복한 경북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예·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통해 예산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고 현안사항을 스스로 찾아 풀고, 도민의 고충사항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은 물론 변화와 혁신을 두려워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처럼 지역의 여건과 실상은 책상 위에서만 아니라 몸으로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그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신념으로 끊임없이 발로 뛰면서 지역경기 활성화 및 도민의 넉넉한 삶을 위해 도의회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강영석(상주), 부위원장 조현일(경산)

△위원 : 박경호(칠곡), 김지식(구미), 박용선(비례), 최병준(경주), 김희수(포항), 고우현(문경), 윤창욱(구미)



[강영석 교육위원장 운영방향 인터뷰]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 육성'이라는 경북 교육 지표가 실현되어 도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수립과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 견제와 동반자 역할을 충실히 하고, 교육수요자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참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며, 교육

구성원 모두가 존경받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해 진정한 교육자치 이념의 실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는 등 정책 대안 마련과 함께 화합된 분위기 속에서 위원들의 지혜와 역량을 최대한 수렴하여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한 생산적 상임위 운영으로 경북 교육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전남 · 경북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한 아름다운 동행

경북 · 전남도의회 21일 영암서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와 전라남도도의회(의장 명현관)는 21일 전남 영암군 삼호농어촌복합체육관에서 '2016년 경북 · 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개최했다.

양 지역의 도의원 117명과 사무처 직원이 참여해 상호 교류 협력을 위한 소통과 화합을 다졌다.

이날 화합 한마당에서는 장대진 의장을 비롯해, 명현관 전라남도도의회 의장, 이낙연 전라남도지사와 장만채 전라남도교육감, 정병운 경북경제부지사, 임종식 경북교육청 부교육감 직무대리 등이 참석해 화합의 의미를 한층 고조시켰다. 또한 경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이 지난 4월 26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

을 주제로 본회의에서 연설했으며, 오는 6월 24일에는 전남도의회 명현관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한다. 앞으로도 양의회는 영호남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2015년 체결한 '상생발전 교류협약'에 따

라 양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과 동반 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으며, 지난 3월 3일 발표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체 구성 · 운용' 등 상생전략사업에 대해 성실히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 조현일 도의원, 2016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대상 수상

-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제정한 가장 권위 있는 상 -

경상북도의회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군위)과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도의원(경산)이 20일 오후 2시 서울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6 지구촌희망펜상' 시상식에서 '2016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홍진규 위원장은 경상북도의회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전국시도의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운영을 이끌었다는 평가와 그간의 뛰어난 의정활동을 인정받아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수여하는 '2016 지구촌희망펜상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2016 지구촌희망펜상'은 세계 각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줌으로써 인류 안정과 개발에 크게 공헌한 자에게 (사)한국지역신문

협회가 전체 10개 부문의 대상자를 엄선하여 수상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져 있으며, 제1회 대상 수상자는 이회호 여사, 故이태석 신부 등이다. 또한, 전국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으로 구성된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정책위원장, 새누리당 경북도당의원협의회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열정적으로 수행한 의정활동을 크게 인정받고 있다.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일 도의원(경산)은 전체 10개 분야 중 의정대상은 올해 신설된 분야로 조현일 의원을 비롯한 전국 광역 · 기초의원 12명이 수상했다.

조현일 도의원은 경산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하여 청록장학회 및 경산맥심회 회장, 경산 라이온스

클럽 회장을 맡아 장학금 기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왔다.

특히 조선임에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및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의회운영 전반에 걸쳐 다양한 활동과 더불어 경상북도의회 출입기자단이 뽑은 '2015 BEST 경북도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

의정 반평



경북도의회 의원 6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김수문, 박정현, 오세혁, 이진락, 황병직, 황이주 의원 수상

경상북도의회 김수문, 박정현, 오세혁, 이진락, 황병직, 황이주 의원이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22일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로부터 제3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 대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 지난 1년 동안 지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방자치를 위해 노력해 온 의정활동 우수의원에게 주어지는 의미 있는 상이다.

김수문(의성) 의원은 도청이전 명품신도시 조성, 더 편리하고 균형 있는 SOC망 구축,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화재 현장 5분 이내 출동률 제고 등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보호로 도민이 행

복한 경북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박정현(고령)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각 국과의 FTA타결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농수산업관련 분야, 구제역·적조 피해 발생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 농어촌 주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잘사는 농어촌, 활기찬 지역 건설을 위해 '경상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 육성 지원조례' 등을 발의했다.

오세혁(경산) 의원은 농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으로 경주 수협 활어위판장, 동해안 적조피해현장, 구제역·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등 현장을 누비며 농어업 현장의 여론 수렴과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으며

'경상북도 농어촌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을 발의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농촌 건설을 위한 입법활동을 전개했다.

이진락(경주) 의원은 문화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특유의 소탈함으로 경북도민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증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주위의 귀감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경상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다.

황병직(영주) 의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입안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는 한편, 항상 낮은 자

세로 도민에게 헌신하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황이주(울진) 의원은 도민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특히, 행정정보복지위원장으로서 장애인 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법인과 개인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수당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은 "제10대 경북도의회 전반기는 도민의 삶 속에 녹아들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의회"였다고 하며 "발로 뛰는 현장의정, 대안을 찾는 연구의정을 펼친 모든 도의원에 감사드린다"며 소감을 밝혔다. 🌟



경북도의회 최태림 의원(의성), 박용선 의원(비례) '대한민국 환경창조 경영대상' 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 수상 환경보전에 남다른 관심... 지역 사회발전과 환경보전에 크게 기여

경상북도의회 최태림 도의원(의성)과 박용선 도의원(비례)이 지역사회발전과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6월 23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 환경창조

경영대상'에서 지방자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환경창조 경영대상'은 월드그린환경연합중앙회와 글로벌녹색리더 가이어 클럽이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녹색환경보전의 확산과 우수한 환경경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 및 환경보전에 기여한 정치·종교·교육 등 각 분야의 공로자를 발굴하여 수여하는 의미 있는 상이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자치법규입안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활동에 매진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동을 펼쳐왔다.

박용선(비례) 의원은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와 무분별한 에너지 사용에 대응하고자 환경과 관련된 꾸준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으며,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안정적인 자원확보를 통하여 도민의 실질적인 혜택을 넓히고자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과 에너지산업 육성 등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활성화 및 농가의 태양광을 설치·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판매함으로써 일정한 농외소득을 창출하는 "경상북도 에너지사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발의하였고, 전 영역에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 사업으로 육성하고자 부단한 노력을 했다. 🌟



전남도의회 명현관 의장, 경북도의회 방문 연설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 위한 정책공조 이어가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와 전남도의회는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분위기 확산을 위해 정책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의회 명현관의장이 6월 24

일 오전 11시 경북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장대진의장과 도의원, 김관용 경북지사, 이영우 경북교육감 등 100여명 참석한 가운데 “미래를 위해 함께 가야할 길”이라는 주제로

연설했다. 이번 방문연설은 경북도 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상생발전을 위해 지난해 합의한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4월 26일 경북도의회 장대진의장의 전남도의회 방문연설의 답방으로 이루어 졌다. 이날 연설에서 명현관 전남도 의장은 “왜곡된 지역주의는 선거에서 이익을 보는 정치인들과 본분을 망각한 일부 언론이 만들어 낸 편견으로 국가발전에 저해하고 있다”며 “양 지역 상생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소통과 교류확대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대가 후반기 의회에서도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래세대를 위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 마련과 영호남 민간단체와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 사업을 제안” 했다.

장대진 의장은 “선정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며, 양 도의회



상생발전을 위해 상호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이라고 말했다.

양 의회는 2015년 경주와 2016년 6월 영암에서 상생협력 화합대회를 가졌으면 전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 기획사회위원회가 경북도를 방문 함께 연찬회를 개최하고,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와 교육위원회도 전남도 도립도서관과 신재생에너지관을 방문하여 위원회별 협력방안을 협의한 바 있다. 🌟



독도도서관 건립을 위한 최종보고회 개최

도서관 건립방안으로 중앙도서관 분관, 경북도립도서관, 독도재단부속도서관형태를 제시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6월 29일(수) 오후 2시 경상북도 의회 세미나실에서「경상북도 독도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의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경상북도 독도도서관은 융·복합형 스마트 독도도서관의 입지는 상징성과 접근성 그리고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건립형태로 국립중앙도서관 독도도서관 분관과 경북도립 독도도서관 형태와 (재)독도재단부속 독도도서관 형태가 제시되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경상북도의회 장대진 의장, 홍진규 의회운영위원장, 독도수호특별위원장과 위원들 그리고 외부전문가로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최철영 위원(대구대 교

수)과 계명대학교 국경연구소 이상환 소장(계명대 교수)이 참석했다.

장대진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독도를 관할하는 경상북도에 독도전문연구기관을 건립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독도도서관 건립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경상북도 독도도서관 건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경상북도의회가 지난 해 8월 개최한 『독도수호토론회』에서 제시된 독도도서관 건립제안을 바탕으로, 독도도서관 건립을 위한 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월에 발주되었다. 경상북도의회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수립된 경상북도 독도도서관 건립 및 운영을 위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독도전문도서관 건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전개

문화산업정책연구회, 환경정책연구회, 세미나 및 현장방문 개최

경상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의원)와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의원)는 ‘전통 문화유산의 보존과 관광활성화 연계 방안’과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하천’이라는 주제로 세미나 개최와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문화산업정책연구회」는 전통문화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 문화·관광상품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군위의 삼국유사 목판사업 도감소를, 「환경정책연구회」는 새로운 생명과 기적을 담은 건강한 생태관광자원으로 거듭나고 있는 울산 태화강 생태공원을 현장방문하고 외부 전문가의 주제발표에 이은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세미나에서 「문화

산업정책연구회」는 삼국유사 목판사업이 가진 전통문화의 복원과 계승 작업의 의미를 되새기고, 문화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환경정책연구회」또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황폐화된 우리 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이를 다시 체험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환경정책연구회」 이동호 대표는 “앞으로도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 등 여러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발한 정책대안 제시 등 입법 연구활동을 강화하여 그 혜택이 도민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2016년 의정활동 전반기 2년 총 결산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민의 반영, 도민 소통 강화



경상북도의회(의장 장대진)는 29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10대 도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2년 성과를 발표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도민에게 편안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를 슬로건으로 정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집행부를 견제 및 감시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주민복지 증진과 서민 경제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조례정비특위 활동 등 입법기능 강화, 전국 최초 '경상북도100인 의정포럼' 출범,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신청사 명칭을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정하고 2016년 2월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고, , 한반도 황금허리경제축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통한 신도청 자족도시 건설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장대진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25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2015년 8월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2016년 3월 8일에는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서」를 체결하고 지방분권 구현과 참다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긴밀한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장대진 의장의 주도하에 전국시도의장협의회는 2016년 3월 12일 신청사에서 20대 국회와 중앙정부, 여·야 각 당에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며, 지방자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국민의 의지를 법 개정으로 관철시키는데 지방자치에 뜻을 같이 하는 이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교류 협약, 동서화합·국민대통합 물꼬

경북도의회와 전남도의회는 2015년 3월 '상생발전 교류협약'을 체결하고 양 지역의 현안사업을 공동으로 추진 및 해결하고 동반성장을 위해 거대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해 공동대응 하기로 했다. 장대진 의장은 날로 비대해지는 수도권

에 대응하기 위해 영호남이 나뉘고 분열되어서는 지방의 생존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경북·전남도의회가 중심이 돼서 수도권 중심주의에 대처하고 지역 생존의 열쇠를 찾을 것을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양의회 의장 본회의 상호 방문 연설, 상생발전 화합대회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장대진 의장은 헌정사상 최초로 2016년 4월 26일 전남도의회를 방문해 '영호남 상생발전'을 주제로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2016년 6월 24일에는 전남도의회 명현관의장이 경북도의회 본회의에서 연설했다. 또한 2015년 5월 경북 경주 및 2016년 6월 전남 영암에서 양 도의회 의원 전체가 참여한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어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했다.

2016년 3월에는 경북·전남 양의회간 상생을 위한 전략추진사업으로 정책발전공동협의회 구성, 상임위원회간 공동연찬회 개최, 매년 양 의회의장의 본회의장 방문연설, 양 지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보장을 위한 원자력안전보장협의회 구성·운영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을 협의·약속했다.

조례정비특위 활동, 전국 지방의회에서 모범사례로 선정

2015년 3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 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운영했다.

1992년도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이후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 T/F팀을 구성하고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으며 도청 및 도교육청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

수조사를 실시해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으며, 조사 결과를 근거로 2016년 6월 현재 74건(29.8%)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2015년 4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 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되기도 했다.

전국최초 100인 의정포럼 출범, 독도도서관 건립추진 등 성과

제10대 의회 전반기에 전국 최초로 '경상북도 의정포럼'을 출범했다.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분과회의 및 대표회의 16회, 14건의 정책제언 등을 통해 각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도정질문 TV생중계 정례화,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제10대 도의회는 의정활동에 대한 도민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민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중요한 의정활동인 본회의 도정질문과 예산심사 전일정에 대해 TV생중계를 정례화 했다.

이는 전국 광역 시도의회 중 최초로 실시한 것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과 주민과 밀접한 도내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해 도의원들이 송곳질하는 모습을 도민들께 알림으로써 도민과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의회로 자리 잡는 기회가 됐다.

전반기에 실시된 도정질문 8회 41명 140건에 대해 모두 TV로 생중계 했으며, 3건의 예결특위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생중계 했다.



지방자치법개정 결의대회



지방자치법개정매니페스트업무협약



상생발전 화합대회(경주)



상생전략사업선포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연찬회



의정포럼 출범식(경북도청 강당)



신청사본회의(행복경북기원박개기)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 명칭은 '여민관' 특허청 등록

2016년 2월 경상북도의회는 산격동 청사 50년을 마감하고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인 역사적인 신청사 이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신청사 명칭은 경상도 개도 700년을 맞아 새천년의 도읍지로서 명성을 이어갈 신도청 시대를 맞아 새로이 이전하는 민의의 전당이자 300만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여민관(與民館)'으로 최종 결정됐다.

'여민관(與民館)' 명칭은 2016년 5월 26일 특허청에 상표 등록 완료됐다.

정책중심 의회운영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10대 도의회 전반기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총 15회 269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조례안 262건, 예·결산안 22건, 결의·건의안 17건, 승인·동의안 29건, 규칙안 2건, 기타안 75건 등 총 4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처리한 조례안 중 51%인 134건이 의원 및 위원회 발의 조례안으로서 제10대 도의회에서 일하는 의회 정책중심 의회의 모습이 자리 잡았음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0대 의회 의정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하에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회 3회, 워크숍 3회, 대규모 토론회 3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미나 1회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의 날' 행사 개최, 「일본 2015 방위백서」 발표, 「일본 2016년 외교청서」 등 일본의 터무니없는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결의대회, 성명발표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했다.

특히 2015년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3번째로 독도에서 개최하고 경북도의회와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독도영유권 강화를 위해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추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 될 '독도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도서관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에 대한 방안을 제시했다.

제10대 전반기 도의회는 도의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인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사업효과가 없는 행사성 경비는 과감히 삭감하고, 도청이전에 따른 정주기반 구축과 지역 균형발전,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도민안전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어 처리했다.

2015년도 예산은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총규모 7조 3,412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472억원(5.0%)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 교육청의 총 규모는 3조 5,55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774억원(5.2%)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 했다.

2016년도 예산은 경상북도 일반·특별회계 총 규모 7조 9,706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6,294억원(8.6%)이 증가했으며, 경상북도교육청 총 규모는 3조 6,991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1,443억원(4.0%)이 늘어난 규모로 처리했다.

현장중심의 활발한 상임위원회 활동

의안심사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 기술성 등을 높이고 의회운영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된 경북도의회 7개 상임위원회는 전문성 있는 안건 심사와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쳤다.

| 의회운영위원회 |



홍진규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은 의정활동에 대한 높은 열정과 적극적인 자세로 의회운영관련 조례·규칙·개정과 탄력적인 회기운영, 의회운영 제도개선을 위한 간담회 수시 개최, 영·호남 교류협력 추진 등을 통해 역동적이고 일하는 의회상 정립에 기여했다.

특히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사무총장, 정책위원장으로 선임되어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및 수도권 규제완화 대응과 지역균형 발전, 지방분권 확대 등의 당면 현안사항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는데 앞장 서 왔으며,

| 기획경제위원회 |

기획경제위원회는 연구하고 공부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의원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투자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며, 민생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시책화 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특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 임·직원의 경영혁신에 대한 책임감이 부족하고

인사 및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을 지적하고 적극적으로 경영혁신과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 행정보건복지위원회 |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 및 자치행정 정책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 도정의 파수꾼으로서 도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고 운영했다.



특히, 원전 및 화력발전 세율을 100% 인상하도록 하는 「지방세법」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경북도세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개정 법률시행일에 맞추어 적기에 개정함으로써 조례개정이 지연될 경우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43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선제적 입법활동을 수행했다.

| 문화환경위원회 |



문화환경위원회는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소관 부서의 추진 업무에 대해 도민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에 역점을 두고 운영했다.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조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12건의 지역문화예술 육성 과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해 도민 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성과를 얻었다.

|농수산위원회|



FTA 농어업 개방에 따라 어느 때 보다 도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농수산 위원회는 농어업 자생력 및 국제 경쟁력 제고, 농어업인의 실질적 소득보장 장치마련 지원, 해양신산업 육성 및 독도 영토주권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한, 집행부와 현지 확인은 물론 한농연 등 농민단체를 비롯해 경상북도의정부포럼 농수산분과와 도 간담회를 갖는 등 민의의 대표기관으로서 지역 농어업 분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는 신도청시대를 맞이하여 도민의 기대감을 충족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실현하여 풍요로운 경북이 되도록 집행부와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의정활동 전개를 목표로 도청이 전신도시를 첨단명품 신도시로 건설하고 미래지향적 소방행정 관리와 현장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두어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상임위 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특히 영양-청기터널 사업장을 비롯한 주요 건설현장, 소방서·안전센터 신축부지 현장을 비롯한 재난현장 등을 12회 22개소를 방문했으며, 건설관련 기업 및 단체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긴급현안 간담회를 5회 실시하고 건설업체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일자리 창출 방안을 강구하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교육위원회|

교육위원회는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안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사회적 이슈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는 현장의정을 실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교육부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문 발표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특수학교장 및 의정부포럼교육분과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노력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한 주요 현안 신속 대처

윤리특별위원회는 도민에게 신뢰받고 깨끗한 의회 만들기를 위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의원행동강령조례』를 제정하고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 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행동강령자문위원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의원 청렴도 제고 및 의회 자정노력을 강화해 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 위원회조례」에 따라 선임된 날부터 다음연도 6월말까지 재임하며, 전반기 1기에는 한창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으로, 2기에는 이태식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16. 1월, 위원 1명 사직으로 14명)으로 구성됐다.

총 40회의 회의를 열어 도청과 교육청 소관 예산안 15건, 결산안 6건, 기타안 12건 등 총 33건의 안건을 심사·의결했다.

독도수호특별위원회는 일본 정부의 독도영유권 주장에 대해 규탄 성명발표 및 결의대회 등 즉각적인 대응으로 도의회의 결연한 독도수호 의지를 널리 알리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4년 11월에는 정부의 독도입도지원센터건립 중단결정을 철회할것을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집행부 및 독도재단과 독도수호정책 수립과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해 간담회를 2회 개최했다.

‘일본 방위백서, (소위)죽도의 날’ 등 일본의 망언과 비상식적인 행태가 있을 때 마다 즉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전반기 중 6회 발표했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경북은 동해안을 중심으로 올진 6기, 경주 5기의 원전이 가동중에 있고, 향후 추가 9기의 원전이 건설중이거나 계획중에 있다. ‘원자력해제기술종합연구센터 경상북도 유치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에 제출했으며, 대전지역의 원자력 연구시설 방문을 통해 원자력클러스터 핵심시책인 제2원자력연구원과 현재 시·도간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원전 해체센터 유치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2016년 6월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원자력 안전대책과 관련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경상북도의회·대구시의회 지방분권추진특별위원회는 2015년 7월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앙관한 지방이양, 지방재정 확충, 자치입법권강화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현안사항에 양 기관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전반기 도의회는 3백만 도민의 축복 속에 신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지방자치 강화, 영호남 화합, 도민 권익 신장, 도의회 위상 강화 등 도민 권익 신장을 위한 주민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쳤다.

장대진 경상북도의회 의장은 “쉽 없이 달려온 전반기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2년전 의장에 취임하며 민생의회, 화합하고 상생하는 의회, 봉사하는 의회,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린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면서,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소통과 열린 의회 운영을 통해 도민이 편안한 경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했으며, 도민과 의회의 위상을 높여가는 가운데, 경북발전을 주도하는 도의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일할 기회를 주신데 대해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후반기 의회도 항상 도민과 함께하는 의회, 신뢰받는 의회, 활발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의정활동, 북핵규탄▶



의정활동독도수호결의대회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 제10대 전반기 2년 결산, 발로 뛰는 의정활동 펼쳐



윤창욱 경북도의회 부의장(구미 출신)은 제8,9,10대 3선 도의원으로 의회 운영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쳐 2014년 7월 제1부의장에 당선되어 제10대 전반기 2년 간 경상북도와 구미시를 위해 실무형, 현장형, 젊은 일꾼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의정활동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정치, 생활정치 펼쳐|

윤부의장의 정치철학은 소통과 배려다. 전반기 2년간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민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찾았다.

경북환경연수원, 아은예절교육원, 청년회의소, 초등학교 등에서 특강을 통해 정책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연탄배달 봉사, 복지시설 위문, 급식봉사, 경로당 난방유 지원, 전통시장 장보기 등 어려운 서민들의 삶속으로 들어가 그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였다. 또한 페이스북 등 SNS(소셜네트워크)를 이용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의정활동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이러한 소통의 결과는 바로 입법활동으로 연결되어, 경상북도 독거노인 지원조례, 경상북도 장애인가족 지원조례, 경상북도 정신건강 증진 조례 등 21건의 조례를 발의·재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올해 2월 안동·예천으로 역사적인 도청 이전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핵심 성장판을 구축하였고,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탄소성형, 타이타늄, 원자력, 의료기기, 가전로봇, 3D융합, 자동차부품, 국방산업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 경북산학융합지구 준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과 도레이첨단소재 유치, LG디스플레이 플렉서블 OLED 1조 5,000억원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과 위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015년 경상북도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책임질 콘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였고, 전국최초 민간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의 재난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민

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16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시도부문에 경상북도가, 시·군·구 부문에서 봉화군이 각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었다.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수평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로 설정할 것을 기본 목적에 명시하였으며(제1조),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직원(제33조의 2), 지방의회 소속의 감사기구 설치(제92조의 3),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설치(제57조의2), 지방의회의 의장의 사무직원 임용(제91조)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법개정 입법제안서를 만들어서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등 20대 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의회 입법정책 및 연구기능 대폭 강화|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독립성을 부여했고, 입법정책기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0대 의회 의정연구활동의 기반을 마련했으며, 산하에 5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고 대규모 토론회 등 10여회에 걸쳐 의정역량강화 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국 최초로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경상북도의정포럼’을 출범시켜 7개 분과회의를 구성·운영하여 14건의 정책제언 등을 의정활동에 반영했다.

|전남도의회와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장 마련|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에는 경주에서, 올해 6. 21일에는 전남 영암

에서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고, 양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호남 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올해 3월 상생전략사업 선포식을 연데 이어 4월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남도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연설을, 6월에는 전남도의회 의장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연설을 하는 등 동서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기타사항으로는|

도민을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특정사안에 대한 정책을 감시, 견제, 대안제시를 위해 원자력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특위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또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도정 중점방향이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윤창욱 부의장은 제10대 전반기 2년간 경북도의회가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 부의장으로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장대진 의장을 중심으로 60명 도의원이 똘똘뭉쳐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제10대 후반기 의장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고, 주변에서의 많은 권유도 있었지만 도의회의 위상과 선후배 도의원간의 예의 등을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부의장은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복귀해 초심의 마음가짐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도민복지증진과 구미시 발전을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발휘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능력있는 정치인,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2015 스승의날 모교 방문



2016 국제탄소산업포럼



경상북도 우수상품시장전시회



도민생활체육대회



어르신과 소통



연탄배달봉사



경북도의회 장경식 부의장, 제10대 의회 전반기 2년 결산 300만 도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 펼쳐

장경식 경북도의회 부의장(새누리당, 포항 출신)은 제8,9,10대 3선 도의원으로서 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독도수호특별위원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으며, 2014년 7월 부의장에 당선되어 대한민국신지식 경영대상(2013), 제1회 전국 우수의정대상(2014), 2014 전국 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의원상, 2016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을 수상할 만큼, 제10대 전반기 2년 간 지역민과 가장 소통을 잘하는 광역의원으로서 본회의·상임위 회의 출석률 98%이상으로서(도단위 공익행사 참석으로 인한 불출석임으로 사실상 100%출석율) 53만 포항시민을 포함한 300만 경상북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주요 의정활동

| 신도청 이전에 따른 향후 제2청사 역할을 할 '동해안발전본부'의 동해안권 이전 확정 주도 |

신도청이 2016년 2월에 북부권인 안동·예천에 이전함에 따라 동해안 100만 도민의 소외감과 상실감을 해소해 줄, 향후 제2청사 역할을 할 '동해안발전본부'의 동해안 이전 확정을 주도하여, 자칫 도민의 갈등양상으로 갈 수 있었던 사안에 대해 경북도민 전체가 서로 상생 발전하여 나아가 경북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지역민 갈등 해결 |

(가칭)우현초등학교 설립요구 민원, 포항 양덕초등학교 부설공사로 인한 안전문제 민원, 동지고·세화고 평준화 요구 민원을 현장에서 중재하고, 적극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대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민원을 원만하게 모두 해결하여 지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고 있다.

해도 모카에식장의 입주가 장례식장 용도변경을 추진하자 실망감과 배신감을 가진 주민들이 도시미관 저해 등을 주장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5~6회 개최하자 지역민들의 뜻을 받들어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중재하였으며, 최근 소송에서 최종 주민들이 승소함으로써 주민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 각종 지역현안 해결 |

동해안119 긴급구조단 포항 유치 및 연일 119안전센터 건립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으며, 시각장애인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북점자도서관(전국 유일 독자건물) 개관에 주도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학부모들과 학생, 학교동창회의 염원이었던 인덕초·대해초·제철동초·세화고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하여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였다.(매년 1개 이상 다목적강당 설치함)

| 도민들과 소통하며 현장밀착형, 생활 의정활동 펼쳐 |

장부의장의 정치철학은 소통과 화합을 통한 위민 의정이다. 전반기 2년간 다양한 통로를 통해 도민들과 현장에서 만남의 시간을 갖고 도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사회구현 |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과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2015년 경상북도 조직개편을 통해 도민안전실을 책임질 컨트롤타워인 도민안전실을 신설하였고, 전국최초 민간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의 재난현장대응역량을 강화해 유사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도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쳤다.

그 결과 2016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평가에서 경상북도가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바 있다.

|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지역경제 살리기 총력 |

올해 2월 안동·예천으로 역사적인 신도청 시대 개막을 통해 경북의 새로운 핵심 성장판을 구축하였고,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인 탄소성형, 타이타늄, 원자력, 의료기기, 가전로봇, 3D융합, 자동차부품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였으며,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출범, 경북산학융합지구 준공,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인프라 구축, 지역 철강경기 활성화 노력, 투자유치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다.

|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추진 |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2014년 8월부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 전남도의회와 교류를 통해 영호남 화합과 상생의 장 마련 |

전남도의회와 경북도의회는 2015년에는 경주에서, 올해 6. 21일에는 전남 영암에서 '경북·전남도의회 상생발전 화합대회'를 열고, 영호남 발전방안들을 마련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다짐했다. 또한 올해 3월 상생전략사업 선포식을 연데 이어 4월 경북도의회 의장이 전남도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연설을, 6월에는 전남도의회의장이 경북도의회를 방문 본회의장 연설을 하는 등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전선을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 도의회 입법정책 및 연구 기능 대폭 강화 |

도의회사무처의 조직 개편을 통해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의 독립성을 부여했고, 입법정책기능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임기제 공무원 정원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5명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 소속 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 활동으로서 |

명품 경북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안전 및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조례를 의원 입법으로 제정하여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며, 사회적 이슈인 학교 비정규직 문제 및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직접 현장을 찾은 현장의정을 실현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 철회」를 위한 교육부 방문, 릴레이 1인 시위, 결의문 발표 등 다각도로 노력했으며, 특수학교장 및 의정보람교육분과위원 등과 간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 기타 사항으로는 |

도민을 위해 시급하고 절실한 특정사안에 대한 정책을 감시, 견제, 대안제시를 하고자 원자력특별위원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독도수호특별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함으로써 특위의 위상과 권한을 대폭 강화했고, 또한 도정질문,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사 등을 통해 도정 중점방향이 일자리창출과 서민경제활성화에 집중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편, 장경식 부의장은 제10대 전반기 2년간 경북도의회가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도민행복, 부자경북의 큰 성과와 발전을 이루고, 대과없이 부의장직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53만 포항시민을 포함한 300만 경북도민의 변함없는 성원과 60명 도의원이 화합하여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밝혔다.

장부의장은 후반기에는 평의원으로 복귀해 초심을 잃지 않고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여, 도민복리증진과 포항시 발전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밝혔다.



독거노인·서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나도록 연탄나눔 봉사활동



지역내 경로당에 어르신들께 안부·문안인사



생존 독립유공자 이인술 어르신께 문안인사



2016. 5월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수상

의회운영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활동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 등 안건처리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홍진규)는 경상북도 의회 제28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여 의결하는 한편, 제285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는 당초 본회의가 3일간으로 계획되었으나, 도정 및 교육행정 등에 관한 질문 희망인의 부족으로 부득이 조정하여 2일간으로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당초 8일에서 6일로, 예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당초 4일에서 7일간으로 연장 조정하는 회기변경 협의

의의 건을 처리하였다.

또한, 제286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7.4일부터 7.7일까지 4일간 열어 의장단 선거, 상임위원 선임, 위원장 선거 등의 안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금번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2015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불용액이 전년도 불용액 8억 7천 4백만원(5.4%)보다 4억 6천 3백만원(3.1%) 감소된 4

억 1천 1백만원(2.3%)으로 나타나 의회운영을 위한 예산집행에 적정을 기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했다.

한편, 홍진규 운영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제10대 전반기 운영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2년 동안 수고한 운영위원들과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제10대 후반기 운영위원회도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처 관계공무원들의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



기획경제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기획경제위원회 활동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공평성에 최선 다하길

동의안을 비롯한 본청 실국 2015년도 결산 심사 진행



기획경제위원회는 제284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기획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제10대 전반기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조합규약 일부개정규약 동의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심의·의결하였다.

결산 심사에서 김희수(포항) 위원장은 “100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결손 처분시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고, 김창규(칠곡) 의원은 “무재산자에 대한 결손처분 후 재산이 증액되었다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지” 물었으며, 배진석(경주) 의원은 “신임 대경연구원이 부임하고 기획경제위원회도 후반기에 접어드는 만큼 전반기에 토론하고 협의했던 대경연구원 문제에 대해서 업무에 연속성이 있도록 기획조정실에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위한(비례) 의원은 “지역개발기금 불용액이 29.9%로 이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기금 운영은 일반예산 보다 탄력성이 있다지만 30%의 불용액은 예산편성의 문제”라고 지적하였다. 고우현(문경) 의원은 “낙동강 살리기

37공구 소송패소에 따른 예비비를 지출한 사유”에 대해 따져 물었으며, 도기욱(예천) 의원은 “출연기관 통폐합에 따른 조직진단 연구용역비 7천만원을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해 물었고, “2년전 새출발위원회에서 제기한 출자·출연기관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였다.

박현국(봉화) 의원은 “법무소송비용 미수납금액이 2014년도까지 9,112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징수결정액 3,487만원 중 37.6%에 해당하는 1,312만원이 미수납액으로 남아있다.”며 “미수납 금액을 조속히 회수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회수활동 및 제도 개선”을 당부하였다.

영해 전통시장, 울진 한울원전 현지방문, 주민들 애로사항 청취

결산 심사 후인 6월 15일부터 16일까지 기획경제위원회 전반기 마지막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다. 첫날인 6월 13일에는 영해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애로사항을 청취하였고, 시장 곳곳을 돌며 장보기 행사도 가졌다. 시장 방

문 후에는 울진 원자력발전소를 방문하여 울진 원전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발전소 시설을 견학하였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원자력은 ‘만의 하나’를 생각하는 철저한 안전 의식을 가지고 운영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였다. 김희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은 “10대 의회 전반기 기획경제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무리하는 현지 확인을 통해 위원님들의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며, “후반기에도 전반기처럼 도민과 아픔을 함께할 줄 아는 따뜻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현지확인

2016. 6. 15(수)~16(목)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활동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제10대 전반기 활동 마무리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등 심도 있는 결산심사 이뤄져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황이주)는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기간중인 6.13(월)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였다.

금번 결산심사는 당초 편성된 예산이 목적에 부합하게 집행됐는지, 불필요한 예산낭비 사례의 유무, 이월사업과 예비비 집행내용, 과다한 불용액 등 예산집행의 적정성·타당성 여부,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다.

부서별 심사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은 도립대학의 자주재원 확보 방안 마련, 건전한 재정운동을 위해 철저한 세수추계 필요, 보조사업에 대한 집행내역 확인 등 내실있는 사업정산 요구, 이월사업에 대해 차질없는 사업추진 필요성 강조, 효율적인 기금 운용,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시 보다 면밀하게 사업계획 수립,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예산집행과 사업실적 등 체계적인 지도·점검 등을 요구하였다.

금번 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황이주(울진) 위원장은 전반적으로 집행부에서 사업집행에 내실을 기하였지만,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일부사업의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이월액에 대해서는,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례안 심사의원 입법 발의로 정책적 대안 제시

한편, 조례안 심사에서는 오세혁(경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김수용(영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정숙(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부 발의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급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였고,

김명호(안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천희(영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수정의결하였다.

선진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타 시도의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과 위원회의 업무 연찬을 위해 6.14(화)~6.16(목) 3일간, 전라남도 일원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과 연찬회를 가졌다.

전라남도 남악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전남복지재단을 방문하여 수요자중심의

맞춤복지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활동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경북도정에 접목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지난 2년 동안의 위원회 활동을 되돌아보며, 위원회 활동성과에 대한 평가와 다가오는 후반기 위원회 활동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황이주 위원장은 "금번 우수 정책 사례 벤치마킹과 업무 연찬회를 통해 앞으로 의정 활동 반영과 효과적인 정책대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도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생산적 의정활동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문화환경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문화환경위원회 활동

도민의 문화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8건의 조례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 펼쳐 ...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위원장 박권현)는 제285회 정례회 기간중인 6월 10일(금)부터 24일(금)까지 15일간 도민들의 문화복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8건의 조례를 심사하고, 2015년도 살림살이에 대한 꼼꼼한 점검을 위한 2015년도 결산심사, 마지막으로 제주도 지역 우수 관광 및 환경시설을 견학하고 이를 통한 정책적인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도민들의 문화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8건의 조례안 심사

6월 13일에는 문화환경위원회 상임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배영애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이상구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이진락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윤종도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박영서 의원이 대표발의한「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경상북도지사가 발의한「경상북도문화상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 도민들의 문화복지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8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2015 회계년도 결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에 이어 2015 회계연도 문화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심사에서는 꼼꼼한 검토를 통해 도민의 살림살이를 철저히 챙겼다.

이 날 질문에 나선

△ 박권현(경도) 위원장은

국비미교부에 의한 예산이월에 대해서는 국비보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및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진락(경주) 부위원장은

경주 역사문화도시조성과 관련 국비미교부로 인한 이월예산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국비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이상구(포항) 의원은

경북도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 복합공간 확보, 인력운영 등 면밀한 계획

수립과 검토를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이운식(상주) 의원은

관광홍보 및 국내외 마케팅, 관광기획 등 관광관련 예산집행 시 효율적인 측면을 중시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윤창욱(구미) 의원은

3대 문화권 사업을 비롯한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비확보 및 예산집행에 더욱 더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 한혜련(영천) 의원은

도내 등산로 표지판 및 안내판 정비 등 예산집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해 격려하고, 업무추진에 더욱 더 철저를 기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제주도 지역 관광, 환경시설 벤치마킹 및 발전방안 모색 연찬회 개최

마지막으로 6월 14일부터 ~ 6월 16까지 2박 3일간 제주도 지역 관광, 환경시설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도내 문화, 환경분야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연찬회를 개최하여, 발로 뛰는 의정활동으로 도민을 위한 적극적인 문화환경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



2016년도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연찬회

2016. 6. 14(화) ~ 6. 16(목) 제주그라빌



농수산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농수산위원회 활동

제주 경마공원 및 농촌관광 공동체 마을 등 방문 현장실태 파악 및 벤치마킹을 통해 농외소득 증대 도모

【활발한 현장 의정활동 전개】

농수산위원회(위원장 정영길)는 제28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 일원에서 현장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 의정활동은 FTA 대응으로 농수산업 발전 및 살맛나는 농어촌 건설 방안 모색을 위해 제주도 경마장 및 경주마육성목장, 농촌관광 공동체 마을 및 6차산업 교육농장 등을 방문하여 우리도 농수산 분야와 비교하여 건설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위원들은 제주시 애월읍에 위치한 제주렛츠런 파크(경마공원)를 방문하여 운영상황을 청취하고 주요 시설들을 직접 확인하면서, 우리도에서 건설중인 영천 경마공원과 관련하여 마사회 관계자들과 심도있는 토론 시간도 가졌다.

한편, 농수산위원회 간담회를 갖고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 상황을 돌이켜 보면서, 지역 농업인들의 피부에 와 닿는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잘사는 농어촌,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 농어촌’을 만드는데 헌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정영길 위원장은 이번 현장활동을 통해 얻은 다양한 현장 지식과 의견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앞으로도 일선 현장에서 도민들의 다양하고 생생한 목소리들을 직접 수렴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산과다 편성 지양 등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예산 반영

【제개정 조례안 및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심사】

또한, 농수산위원회는 제285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3일, 농수산위원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5건과 농축산유통국, 동해안 발전본부 및 농업기술원 소관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했다.

위원들은 농축산유통국은 세출예산 8,017억 706만원 중 이월액 961억 5,760만원과 집행잔액 33억 72만원이 발생, 동해안발전본부는 세출예산 1,190억 4,038만원 중 이월액 38억 6,693만원과 집행잔액 5억 9,885만원이 발생, 농업기술원은 세출예산 554억 928만원 중 집행잔액 3억 7,644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고,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예산편성과 집행 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위원들은 보조사업의 신청 저조 및 중도 포기로 인한 불용액 과다 발생을 지적하면서 보조사업 페널티 적용 강화 등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과 농가소득 유발사업 발굴을 위한 예산규모 증대, 동해안 연안침식 대책 수



립, 과수농가의 농외소득 제고 방안, 기금운용의 안정성 강화 등을 요구했으며, 특히, 예산 전액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일부사업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토로 불용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소요분석 등을 통해 적정예산을 편성하고 부득이 불용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에 정리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



건설소방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건설소방위원회 활동

건설소방위원회, 2015년도 결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6월 13일 제285회 도의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균형건설국, 도민안전실, 소방본부, 도청신도시본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결산 심사를 했다. 지난해 도민안전실 신설 이후 도민의 행복과 안전한 경북건설을 위해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민안전실장을 비롯한 직원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재난컨트를 전담부서인만큼 재난발생시 일관성 있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1건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6월 13일 제285회 정례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도민안전실(실장 허동찬) 소관 조례안 과 지역균형건설국(국장 최대진) 소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각각 심사했다.

심도 있게 심사한 이번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자 구호 및 공공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도내 사회재난 발생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도민의 안전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으며,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지방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

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 개최
글로벌 매너 지식 함양 특강 및 충남 내포신도시 조성현장 벤치마킹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정으로 충남 천안 풍서천 현장, 충청남도의회, 내포신도시 등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위원 및 관계공무원 14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건설소방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첫째 날인 14일은 풍서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자연형 완경사의 제방 조성지와 자전거도로 및 산책로 조성지 등 현장을 면밀히 살펴보고 홍수에 안전하고 다양한 생물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과 지역주민에게 여가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문화하천으로 변모하는 사례를 벤치마킹했다.

이어서 오후에는 정태연 교수를 초빙해 해외 상호교류 등 다양한 글로벌 행사를 경북에서도 많이 개최함에 따라 국가 간의 다양한 문화 차이와 우리가 가져야 할 매너를 배울 수 있는 "세계 속의 경북, 건설소방위원회의 글로벌 매너"라는 내용으로 특강 후, 의원으로서 해외에서 겪었던 경험과 사례 등 토론의 시간을 가지면서 경북의 이미지 제고방안에 대하여 열띤 논의를 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충청남도의회를 방문하여 양 지역의 건설소방위원회 간담회를 통한 소통과 화합의 장 마련과 지속적인 정보교류 협력을 적극 모색하고, 경상북도청 보다 먼저 이전된 충청남도청의 주변 내포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브리핑을 듣고 내포신도시 종합 계획과 도청 이전 초기의 문제점·불편사항과 그에 대한 대책과 실제 효과 등을 청취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신도시 조성 활성화 우수사례를 벤치마킹 했다. ☺



교육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활동

도민에게 편만한 의회, 열린 의회, 소통하는 의회



2015년도 도교육청 결산 승인 및 조례안 심사

집행잔액 과다 발생, 이월사업 증가 등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 촉구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6월 13일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6건에 대해 심사했다.

「2015 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면서 전년도 대비 불용액과 이월액이 각각 565억, 1,797억 증가한 것에 대해 예산편성 시 철저한 사전 검토가 미비하였다는 것을 지적하였고, 특히 교원인건비, 누리과정사업비, 저소득

층자녀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금 등은 사업대상자의 인원을 보다 정확히 추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촉구했다.

조례 5건을 심사하여 김봉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도교육청이 제출한「경상북도교육감 행정 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공무원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

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모두 원안가결하였다. 특히, 김봉교의원이 대표 발의한「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은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 우레탄 트랙 납성분 검출과 관련하여 학생들의 건강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 운동장 조성에 있어서도 흙이나 인조 잔디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는 친환경적인 운동장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장 중심의 활발한 의정 활동

전남도 특색학교 순천인안초등학교 방문

교육위원회(위원장 이영식)는 제285회 정례회 기간 중인 6월 14일부터 16일까지 전라남도 일대를 방문하였으며, 특히 폐교위기의 학교에서 찾아오는 학교로 변모하게 된 순천인안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교직원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경북에서 본받아야 할 모범사례 등에 깊은 관심을 가졌다.

전남도 특색학교인 순천인안초등학교는 일명 '무지개학교'로 불리며 순천만의 다양한 생태교육, 전교생 태권도 유단자화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는 소규모 학교다.

이영식 위원장은 "전남도의 경우 우리 경북도와 비슷하게 학교수는 많으나 대부분이 소규모학교로 교육부의 통폐합 권고 대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도 농어촌만의 특색을 살린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소규모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현일 의원 '2016 지구촌 희망펜싱 의정대상' 수상

전국 200여 지역신문인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

조현일 의원(경산)이 (사)한국지역신문협회가 주최하는 '제3회 2016 지구촌희망펜싱 의정대상'을 6월 2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의 200여 지역신문이 세계 각국의 사회 각 분야에서 희망과 비전을 가져다줌으로써 인류 안정과 개발에 크게 공헌한 사람에게 시상하는 것으로, 조현일 의원은 경산 지역의 인재 육성을 위해 청록장학회 및 경산맥심회 회장, 경산 라이온스클럽 회장을 맡아 장학금 기탁,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한 공을 인정받았다. 🌟



특별위원회

제28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태식)는 지난 6월 17일부터 23일 기간 동안 경상북도지사와 교육감이 제출한 2015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의결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에서 실시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정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 사업시행의 효과와 수혜도 등을 면밀히 따지고 결산심사 결과와 도와 도교육청의 재정운용에 반영되도록 촉구했다. 이태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결산은 단순히 예산집행 결과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는 사후

적 재정감독 수단으로 재정운영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의회의 예산심의에 확인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결산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집행부에서는 그 의미를 유념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제285회 정례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원자력 안전관리 현장 점검 및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한 반대 결의안 발표

원자력 안전관리 현장점검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6월 8일(수)~9(목)에 경주지역내 원자력 주요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추진상황 점검을 위해 현장 방문을 하였다.

월성원자력본부, 경주 환경관리센터(중·저준위 방폐장)를 방문하여, 최근 재가동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한 안전성 문제, 사용후 핵연료 저장 현황과 향후계획, 방사성폐기물 반입절차 등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하여 관계자들과 질의와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경북도 차원에서 한수원 본사의 차질 없는 이전과 가족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병준 위원장은 “최근 노후 원전 수명연장 가동과 원자력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원자력 안전관리 대책은 어떠한 정책보다도 우

선시 되어야 하며, 원전 안전의식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안에 반대한다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위원장 최병준)는 제285회 정례회 제4차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6.24(목) 10:00, 행정안전부지위원회 회의실)를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관계부서의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의 미흡 등 만일한 대처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부서를 강하게 질타하였다.

그리고, 경상북도의회 원자력안전특별위원회는 본회의장에서 경상북도의회 전체 의원들과

함께 300만 도민의 염원을 결집시켜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 기본계획(안)에 반대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였다.

최병준 위원장은 “도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방적인 정부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반대하며, 정확한 정보제공과 원전지역 주민들의 합의와 동의를 통한 기본계획안을 수립을 촉구한다.”고 힘주어 말하였다. 📢



제285회 정례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평가 및 보고서(안) 작성을 위한 연찬회 개최

현재까지 조례 435건 중 248건 정비조례 발굴, 현재 74건(29.8%) 개정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곽경호)는 6월 7일부터 8일까지 1박 2일간 울진에서 지난 1년 3개월 동안의 조례정비 활동결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조례정비 활동결과보고서(안) 작성을 위해 “경상북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연찬회”를 개최했다.

지난 1년 3개월 동안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도청 및 도교육청 조례 435건 중 248건(57%)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그 중 74건(29.8%)을 개정했다. 이번 연찬회를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초안 검토와 자유토론을 통해 최종안을 작성한 후 다가오는 제28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를 오는 24일 본회의에 보고하여 승인 받을 계획이다.

곽경호 위원장(칠곡)은 총평을 통해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구성만으로도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을 확실히 인식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으며, 활동결과보고서의 체계적인 작성과 조

례정비 성과에 대한 홍보를 통해 일하는 지방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통해 신뢰받는 행정 구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마무리하면서 그 동안 수고한 위원들과 의회사무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앞으로 보고서 채택

이후에도 미 정비된 조례들을 조속히 정비하여, 도민들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정질문

신도청과 각 시·군을 잇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 절실

장영석 의원(구미)은 신도청과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그로 인해 심리적 거리도 커진 만큼, 신도청과 각 시·군을 잇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망 확충이 가장 절실할 것으로 강조하고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구미의 경기침체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침체된 구미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다각화하고, 노후단지를 리모델링하여 혁신단지화 하며, 강소기업을 집중육성하고, 대기업 의존도를 줄이고 업종 전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차세대 먹거리 산업에 있어 융복합한 소성형 부품산업 클러스터, 국방ICT 생태계 조성, 자율주행 자동차 부품개발사업 등을 집중적으로 육성하여 재도약의 청사진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한 도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24개 학교가 아직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어 수인성 전염병 발생 등의 잠재적 위험에 노출되고있음을 지적하고, 학교보건위생 차원에서 하루 빨리 광역상수도로 개선되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장영석 의원(구미)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에 맞서 선제적 대응을 기해 줄것을 촉구

김종영 의원(포항)은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위험하고 시급한 것이 있다면, 바로 장마철 노후 저수지 관리라고 지적하고 우리 경북이 재해위험 저수지가 많은 만큼 장마철 집중호우나 폭우, 태풍에 맞서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고도산업사회로 갈수록 사회가 복잡하고 실종사건 등이 더욱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실종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지원하고, 실종자 방지를 위해 지문사전등록제 전면 실시는 시기적으로 매우 시의적절한 제도라고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에서 방임받거나 노인 스스로 자기 방임하는 노인의 경우, 생활상 안전사고와 고독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이들 독거노인들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필요하고, 시설 입소를 위해 타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방임노인들끼리 스스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독거노인 공동 생활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하였다.



김종영 의원(포항)

독도정책에 대한 재정비 시급

김희수 의원(포항)은 지금까지 추진 중인 독도정책에 대한 재정비가 시급하고, 울릉공항마저 좌초위기에 놓여 있는 점을 강조하고 울릉공항 건설 지연의 가장 큰 피해자는 경북도민이며, 이에 경북도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또한 독도를 방문하는 78%의 방문객만이 독도 땅을 밟는 상황에서 독도의 접근성 개선과 관광객 안전을 위한 방파제 설치사업과 입도지원센터 건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도내 6.25 현충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함을 지적하고 향후 문산호 복원사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경북도의 대책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 운동장 우레탄트랙에서 파다 중금속(납, 카드뮴 등)이 검출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이에 대한 교육감의 입장과 향후 실효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도내 공공체육시설의 인조잔디와 우레탄트랙에 안전관리 실태점검은 물론 안전조치가 취해져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김희수 의원(포항)



제285회 정례회

주요처리안건 소개

▶ 경상북도 건강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김명호 의원 외 32명, 2016.5.30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건강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도모하는데 있다.

▶ 경상북도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오세혁 의원 외 3명, 2016.5.30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을 도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 개방공간 및 이용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 및 공동체문화 형성,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한.

▶ 경상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남천희 의원 외 11명, 2016.5.30
－ 제안이유 :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함.

▶ 경상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김정숙 의원 외 2명, 2016.5.30
－ 제안이유 : 출산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개인문제→국가문제)와 함께 최근 첫째아 출생아 수 감소 추세에 대응하여 둘째아 이상에게만 지원하던 출산장려금을 첫째아까지 확대·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대한 긍정적 사회분위기 확산 및 출산 장려 도모, 「임신·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 예규)의 시행으로 ‘출산장려금 지원’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신청기관 확대(현행 보건소장→읍·면·동장 또는 보건소장)를 통해 도민의 행정서비스 이용 편의성 제고

▶ 경상북도 장사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김수용 의원 외 14명, 2016.5.30
－ 제안이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상북도 내 장사시설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장사시설 이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경상북도지사, 2016.5.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변화된 주변 환경을 반영한 현행 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반영하려는 것임.

▶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발 의 자 : 이상구 의원 외 9명, 2016.5.30
－ 제안이유 : 도내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 활성화를 통해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 발 의 자 : 배영애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에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도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며, 도내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시키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 경상북도 외래생물 관리 조례안

－ 제 출 자 : 윤종도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

어온 “외래생물”과 “생태계교란 생물”의 증가로 인한 우리 고유의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어 도내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며, 토종생물의 보호를 위해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 경상북도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조례안

－ 발 의 자 : 한혜련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문화예술분야 후원문화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공공재원 조달의 한계에 이른 문화예술분야의 진흥을 진일보시키고 나아가 문화향유기회를 확대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이진락 의원 외 10명, 2016.5.30
－ 발 의 자 : 「문화재보호법」개정에 따른, 자치단체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과 다른 용어를 현행화 하고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및 절차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정집행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 경상북도 순환골재 등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박영서 의원 외 8명, 2016.5.30
－ 제안이유 : 이 조례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자원의 순환성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경상북도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장영석 의원 외 14명, 2016.5.30
－ 제안이유 :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으로 도민의 지적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지역사회의 문화 발전과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 경상북도 문화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경상북도지사, 2016.5.30
－ 제안이유 : 1990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고 있는 문화상 수상 부문을 간단명료화하고 현실에 맞게 재분류 하고 공적내용의 사실 불일치, 품의손상 등의 경우 수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함으로써 문화상의 가치와 품격 제고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박현국 의원 외 11명, 2016.5.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조주홍 의원 외 11명, 2016.5.30
－ 제안이유 :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영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용 용도를 구체화하고, 기금심의 강화와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농수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이동호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도내 농수산업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전통 소싸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발 의 자 : 박권현 의원 외 24명, 2016.5.30
－ 제안이유 : 전통 소싸움은 신라시대부터 전승되어 온 우리나라 고유의 민속놀이로 도내 청도군에서 지난 1995년부터

소싸움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2011년 9월 전국 최초로 상설 소싸움 경기장을 개장하여 건전한 레저문화 확산과 지역경제·문화산업 발전 및 전통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싸움소 사육 등 축산업의 다양성 확보를 통한 문화레저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 의 자 : 경상북도지사, 2016.5.30
－ 제안이유 : 「동물위생시험소법」이 제정(2015.6.22.) 시행(2016.6.23.)됨에 따라 기관 명칭이 변경되고, 종전 「식품위생법」, 「약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등 6개 관계 법령에 분산되어 있던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관리 체계의 품질관리, 지정절차, 행정처분 등이 일관성 있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제 출 자 : 정상구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회재난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2016.5.31 시행)”에 의하여 국고 지원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소규모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방비로 재난피해자에게 구호비·생계비 등 긴급 생활안정지원과 공공피해 복구 등 피해수습을 지원하기 위한.

▶ 경상북도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안

－ 제 출 자 : 이동호 의원 외 10명, 2016.5.30
－ 제안이유 :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의 주거환경개선 및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6.5.30
－ 제안이유 : 감사업무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현장 중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6.5.30
－ 제안이유 : 한시기구로 운영하고 있는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학생 수용 및 적정규모학교육성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6.5.30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 제13428호, 2015. 7. 24. 공포, 2016. 1. 1. 시행)과 ‘2016년 시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수립 지침’에 의거 근거조항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안

－ 제 출 자 : 김봉교 의원 외 1명, 2016.5.30
－ 제안이유 :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신체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경상북도교육청 통폐합학교 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제 출 자 : 경상북도교육감, 2016.5.30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개정(법률 제13428호, 2015. 7. 24. 공포, 2016. 1. 1. 시행)에 따른 기금의 출납폐쇄에 관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10대 후반기 경상북도의회 출범!

300만 도민에게 **힘**이 되고, **정성**을 다하는
경상북도의회가 되겠습니다.

